

두지와 더지의 랜선 투어!

무령왕릉의 비밀을 찾아서



이름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가 한성(현재의 서울)을 중심으로 건국한 나라예요.
 4세기 근초고왕은 황해도부터 전라도 일대까지 영토를 넓혔어요.
 그러다 475년 고구려군의 침공으로 큰 위기를 맞고
 수도를 웅진(현재의 공주)으로 옮기게 되요.
 이후 즉위한 무령왕은 백성들의 안정과 국력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요.
 538년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은 넓은 평야가 있는
 사비(현재의 부여)로 도읍을 다시 옮겼어요.
 사비는 660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도읍이었어요.

BC.18 건국

한 성

백제

475년 천도

○ ㅈ

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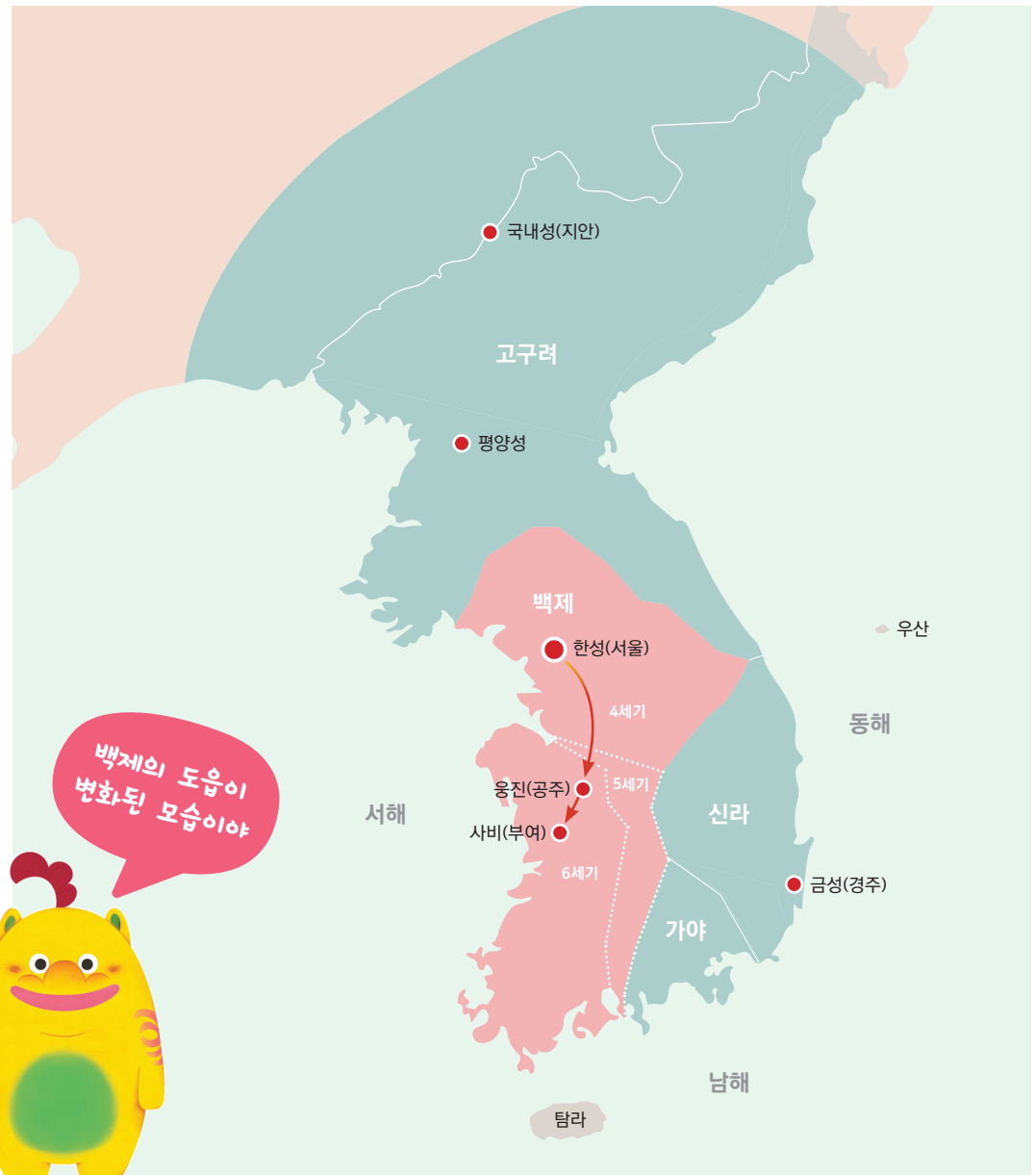
538년 천도

ㅅ ㅂ

백제

Q. 퀴즈

- 1 백제를 세운 사람은 주몽이다. ☐ X
- 2 백제의 첫 도읍지는 웅진(지금의 공주)이다. ☐ X
- 3 백제 근초고왕은 평양성에서 고구려를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 X
- 4 백제와 고구려는 동맹을 맺어 신라를 공격하였다. ☐ X
- 5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와 동맹을 맺었다. ☐ X
- 6 백제인들은 고구려에게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이동했다. ☐ X
- 7 웅진은 지금의 부여이다. ☐ X



무령왕(재위 501-523)

-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 또는 웅이예요.
- 무령은 죽은 뒤에 왕의 업적을 칭송하며 붙인 이름[시호諡號]이에요.
- 고구려의 침입에 대처하며 백성들의 안정과 국력회복에 힘쓴 왕이에요.
- 무령왕은 즉위 후 가뭄으로 굶주린 백성을 위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 제방을 쌓아서 토지를 만들어 백성들이 농사짓게 해 주었어요.
- 521년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강위강국更爲強國] 알리기도 했어요.
- 일본(왜倭)에 박사를 파견해서 지식을 전달했어요.



Q. 퀴즈

- 1 무령왕은 (한성 / 웅진) 시기에 민생과 왕권을 안정시켰다.
- 2 무령왕은 군사력을 재정비하여 고구려를 (공격 / 항복)했다.
- 3 무령왕은 가뭄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 세금을 철저히 거두었다).
- 4 무령왕은 흩어진 백성들을 찾아내어 (벌을 주었다 / 백제로 돌아오게 하였다).
- 5 무령왕은 중국의 (양나라 / 소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 6 무령왕은 왜(일본)에게 최신 기술을 (배워오도록 했다 / 전해주었다).
- 7 강력해진 백제는 무령왕의 아들 성왕 때 넓은 땅 (웅진 /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무령왕릉 발굴이야기

무령왕릉은 1971년 7월 장마철에 배수로 공사 중에 발견되었어요. 무려 1,4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기존의 백제 무덤과는 달리 전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 되었답니다. 왕릉을 열기 전에 위령제를 올리고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였고, 그 앞에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있어서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라는 것이 확인 되었어요.



3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살펴볼까요?

무덤을 지키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안내하는 역할로
뿔과 날개가 달린
상상의 동물이에요.
돌로 만들어서
석수라고도 해요.



묘지석 위에 올려져 있는
중국 돈이에요.



무덤 주인의 이름,
돌아가신 나이,
무덤 위치 등의
정보가 적혀있어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께서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523년) 5월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525년) 8월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모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생각하기

무령왕릉 속 지석의 내용을 통해 무덤에 주인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훗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꾸미고 싶나요?
묘지석에 적고 싶은 글귀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거나 그려보아요.



무령왕릉은 연꽃무늬



쌍아 만든 무덤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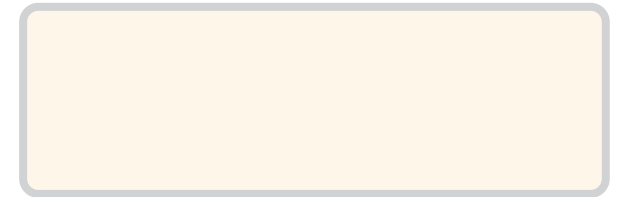


일본에서 가져온
금송이라는 나무로
만든 것으로 검은색
옷칠을 했어요.





금동신발은 340mm로 굉장히 커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받침 있는 은잔에는 신선, 용, 연꽃 등의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게 된다면
어떤 무늬를 새기고 싶나요?
표현해 보세요



나에게 무령왕릉은 이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